

33 일 봉헌 25 일

제 3 장 제 6 일, 묵시록의 여인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언제나 당신 아드님을 앞서 오신다. 아드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역시 마리아는 아드님을 위해 길을 닦으실 것이며, 그때 마리아는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서 구세사의 마지막 싸움을 지휘하실 것이고 당신의 정배이신 성령과 함께 선택된 영혼들에게 "오라"는 복된말씀을 하실 것이다. 마리아는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시며 마리아의 능력과 사명은 세상 끝날에 가장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1. 시작 기도 :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천천히 성호를 긋고 잠시 자신을 반성한 뒤 성령송가를 바치거나 성령에 관한 성가를 부른다.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주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 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2. 독서 : 아래 내용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정독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에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본다.

1) 요한 묵시록 12, 1-12 :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 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자가 내쫓겼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너희 땅과 바다는 불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2) 참된 신심 49 항-54 항

49. 인류 구원은 마리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또 마리아를 통하여 완성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인류가 마리아에게 너무

지나치게, 너무 강하게, 또 너무 분별없이 집착하여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하느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벌써 마리아를 알고 있었더라면, 지존하신 분께서 친히 부여하신 마리아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지나치게 집착할 우려가 많았다. 사실 아레오파고의 재판관인 디오니시오는 마리아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신비스러운 매력과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자신의 참된 길을 신앙이 깨우쳐주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를 한 여신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마리아도 정배인 성령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날 것은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이제 성령께서도 당신의 정배이신 마리아를 복음 전파가 시작된 뒤로 지금까지처럼 별로 드러나지 않게 하실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된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마리아가 알려지게 됨으로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50.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마지막 시기에 당신이 창조한 조물 중에 걸작품인 마리아를 만민 앞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마리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극히 겸손하여 숨어 살았으며 자신을 하찮게 여겼고 하느님과 사도들과 복음사자들로부터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2)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 은총의 걸작품이었고, 하늘에서는 그 영광에 의하여 하느님의 걸작품이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당신의 이 업적이 찬미와 칭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3) 마리아는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비추는 샛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태양)께서 더욱 잘 알려지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마리아(샛별)가 알려지고 보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4)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길이므로, 그분의 재림 시에도 비록 방법은 다르겠지만 역시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5) 마리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발견하는 확실한 방법이며, 안전하고도 빠르며 티없는 길이다. 그러므로 성덕으로 나아가려는 영혼들이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를 찾아내는 사람은 생명을,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요한 14, 6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그러나 마리아를 찾지 않고서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물건은 찾지도 않고 가지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더욱 더 잘 알려지고 그분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많이 알려져야 한다.

6) 마리아는 세상 마지막 시기에 자비와 권능과 은총에 의하여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마리아는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오는 불쌍한 죄인들과 탈선한 사람들을 자비로써 따듯이 받아들일 것이다. 유혹과 헐박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멸망케 하며 하느님께 반항하는 적들에 대해서 마리아의 위대한 권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의를 위하여 싸울 그분의 충실한 종들과 용맹한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부축해주기 위하여 은총으로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7) 특히 마지막 시기에 마리아는 악마와 그 앞잡이들에게는 질서정연한 군대처럼 무서운 존재일 것이다. 그때에 영혼을 멸망시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들은 날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해올 것이며, 특히 굴복시키기 힘든 마리아의 충실한 종들과 참된 자녀들을 목표삼아 맹렬한 공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51. 거짓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날로 더욱 극심해질 마귀의 마지막이며 무시무시한 박해는, 하느님께서 낙원에 있던 뱀을 향하여 내리신 최초의 저주와 예언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마리아의 영광과 마리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또 악마들의 수치를 위해서 여기서 하느님의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창세 3,15)

52. 하느님께서 단 한 번 맺어준 유일한 원수의 관계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 원수 관계란 바로 마리아와 악마 사이에, 또 마리아의 자녀들과 그분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악마의 자식들과 그 추종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악마들에게 맺어준 가장 무서운 원수이시다. 하느님께서 낙원에서 예언하실 때 마리아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만 있었지만, 그때 이미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 저주받을 원수에 대한 많은 증오감과 그 "옛날의 뱀"(묵시 12,9)의 악의를 투시하는 지혜와 그 교오하고 불충한 자를 이기고 쓰러뜨리며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너무나 큰 힘을 주셨으므로, 악마들은 천사나 인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면으로는 하느님보다도 마리아를 더욱 무서워한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한정된 성덕을 가진 유한한 피조물인 마리아보다 하느님의 분노와 증오와 권능이 작을 수는 없다. 그런데 악마가 마리아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첫째, 악마들은 교만하기에 하느님에 의해서보다는 하느님의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종 마리아에 의하여 패배당하고 벌 받는 것을 더욱 분히 여기고 마리아의 겸손이 하느님의 능력보다도 그에게 더 큰 수치를 주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악마들을 쳐이기는 크나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마들이 마귀들린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가끔

본의 아닌 진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악마들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바치는 모든 성인들의 기도보다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한 번이 더욱 무섭고 어떠한 고통보다도 그들에 대한 마리아의 위협이 더욱 무섭다는 것이다.

53. 루치펠이 교만으로 잃었던 것을 마리아는 겸손으로 회복하였고, 하와가 하느님께 대한 불순명으로 지옥에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것을 마리아는 순명으로써 구원하셨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들어 자신과 더불어 자기의 모든 자식들까지도 멸망에 빠지게 하고 악마의 손에 넘겨주었으나, 마리아는 하느님께 완전히 순명하심으로써 자신과 더불어 모든 자녀들과 종들을 구원하고 하느님께 그들을 봉헌하심으로 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다.

54.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와 악마 사이에 뿐 아니라, 마리아의 자녀들과 악마의 자식들 사이에도 원수 관계를 맺어주셨다. 즉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를 섬기는 자녀들을 한 편으로, 마귀의 자식들과 종들을 다른 편으로 하여 이들 사이에 원수 관계를 맺어주셔서 적대심과 반감과 은밀한 증오심을 심어주셨다. 그들은 서로 내적인 교감이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없다. 베엘제불의 자식들과 사탄의 노예들과 세상의 아들들(이상은 모두 같은 것이기에)은 항상 마리아에게 속한 자들을 박해하였고, 또 그들의 박해는 옛날에 카인이 아우 아벨을, 에사우가 아우 야곱을 미워한 것과 같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겸손하신 여종 마리아는 언제나 교만한 사탄을 눌러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며, 그리하여 교만의 본거지인 원수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마귀들의 함정을 알아내며, 그들의 협박을 예방하고 그들의 악랄한 조언들을 흠뜨릴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의 충실한 사도들을 원수의 잔혹한 발갈퀴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마들에 대한 마리아의 능력은 특히, 악마들이 마리아의 발꿈치를 물려는 세상의 끝날에 마리아께서 악마들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당신의 보잘것없는 종들과 미소한 자녀들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모든 악마들의 힘을 초월하여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까지 마리아의 종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하여, 다른 지체에 비해 발꿈치가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천대당하고 경멸당하며, 짓밟히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넘칠 것이며 하느님 앞에서 마리아의 종들은 성덕에 있어 훌륭하고 고결하며, 불타는 열성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을 얻어 발꿈치와 같은 겸손과 마리아와의 일치로 악마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승리로 이끌어가시게 할 것이다.

묵상 전 기도

티없으신 동정 성모 마리아님,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께서 당신께 베푸 모든 은총에 대해
성삼께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드리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성부께로부터 저희에게 오셨으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당신은 또한 저의 어머니시고
주인이시며 모후이시니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시고
저를 위하여 성령의 비추심과 사랑을 빌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더 잘 알고
더욱 사랑하도록 해주소서.
저는 당신께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당신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제 안에 천상 사랑의 불을 붙여주소서.
아멘.

4. 생활 실천 : 묵상 중에 느낀 내적인 움직임이나 깨달은 점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5. 묵주기도 : 환희의 신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봉헌하여 성모님의 참된 자녀가 됨으로써 악의 모든 세력에서 보호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 (묵주기도는 다른 시간에 바쳐도 된다).

6. **마침 기도** : 묵상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바다의 별** 기도를 바친다.

바다의 별

바다의 별이요,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평생 동정이시며, 하늘의 문이시여, 하례하나이다.
죄인의 사슬 풀고, 눈먼 이에게 빛 주시며
악을 멀리 쫓고, 선을 구해주소서.
기묘하신 동정녀요, 가장 양선하신 이여
저희를 죄에서 구해, 착하고 조찰케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삼위이신 성령께 같은 존경 있어지이다.

성모 호칭기도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

천주 성령님,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천주의 성모님, ●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

그리스도의 어머니 ●

천상 은총의 어머니 ●

티없으신 어머니 ●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

순결하신 어머니 ●

흠없으신 어머니 ●

○ 사랑하올 어머니 ●

탄복하올 어머니 ●

슬기로우신 어머니 ●

창조주의 어머니 ●

구세주의 어머니 ●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

공경하올 동정녀 ●

찬송하올 동정녀 ●

튼튼한 힘이신 동정녀 ●

인자하신 동정녀 ●

성실하신 동정녀 ●

정의의 거울 ●

상지의 옥좌

즐거움의 샘 ●

신비로운 그릇 ●

존경하올 그릇 ●

지극한 사랑의 그릇 ●

신비로운 장미 ●

다윗의 망대 ●

상아 탑 ●

황금 궁전 ●

계약의 궤 ●

하늘의 문 ●

셋별 ●

병자의 나음 ●

죄인의 피신처 ●

근심하는 이의 위안 ●

신자들의 도움 ●

천사의 모후 ●

성조의 모후 ●

예언자의 모후 ●

사도의 모후 ●

순교자의 모후 ●

증거자의 모후 ●

동정녀의 모후 ●

모든 성인의 모후 ●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 ●

목주기도의 모후 ●

가정의 모후 ●

평화의 모후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이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